

피부과 방문 환자들의 피부 건강 및 피부 질환의 인식에 대한 분석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¹,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²,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³,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⁵,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⁶,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⁷,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⁸

최창민 · 조희령 · 유박린 · 심우영 · 이준영¹ · 안규중² · 송해준³
김규한⁴ · 조광현⁴ · 이은소⁵ · 이민걸⁶ · 최지호⁷ · 박천욱⁸

The Recognition of Skin Health and Diseases in Dermatologic Outpatients

Chang Min Choi, Hee Ryung Cho, Bark Lynn Lew, Woo Young Sim, Jun Young Lee¹,
Kyu Joong Ahn², Hae Jun Song³, Kyu Han Kim⁴, Kwang Hyun Cho⁴,
Eun So Lee⁵, Min Geol Lee⁶, Jee-Ho Choi⁷, Chun Wook Park⁸

Department of Dermatology,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¹,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²,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³,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⁴,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⁵,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⁶,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⁷,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⁸, Korea

Background: Social interests and the prevalence of skin disease have increased rapidly along with soci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life quality. Information on skin diseases and aesthetics are available through the internet and mass media.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value of this information and the treatment-seeking behavior of patients.

Objective: To evaluate the recognition of skin health and diseases in patients who visit dermatology clinics and to improve the role of dermatologists in the process.

Methods: From March, 2008, to April, 2008, 1901 patients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in 62 dermatologic hospitals. The questions covered: purposes of visiting the clinic; duration of skin disease; treatment-seeking behavior; recognition of the prescribed medicine; compliance and common sense about representative skin problems.

Results: Patients visited the dermatologic clinic because of skin disease for 67.39% of patients, esthetic treatment in 22.88% of patients, and both in 9.73% of patients. For visits to a dermatology clinic for skin problems, 61.28% of patients visited a clinic but 38.72% did not. Most (81.38%) patients followed the doctor's prescription. Most negative responses to prescribed medicine were due to the internet and mass media or wrong information from pharmacists (52.24%). Moreover, patients who learned about skin diseases and prescription medicines through the internet usually lacked compliance and common sense regarding their skin problems.

Conclusion: The internet can provide good information about healthy skin and skin diseases, but we have to consider its disadvantages of exaggeration and misbelief. The effects of this tool have been overstated and excessively publicized in comparison to actual established clinical results. Use of the internet may delay diagnosis and decrease compliance. Consequently, dermatologists have to provide correct information to minimize the disadvantages of internet information. Patients who have abnormal skin problems should visit dermatologic clinics to be evaluated and treated appropriately. (Korean J Dermatol 2010;48(3):184~190)

<접수: 2009. 12. 2, 수정: 2010. 2. 18, 게재허가: 2010. 2. 19.>

*이 연구는 2008년 피부건강의 날 기념 설문조사로 피부과학회 주관으로 이루어졌음.

교신저자: 심우영

주소: 134-727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49,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피부과

전화: 02)440-7329, Fax: 02)440-7336, E-mail: bellotte@hanmail.net

Key Words: Compliance, Dermatology clinic, Recognition, Skin disease, Treatment-seeking behavior

서 론

우리 사회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피부 질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피부 질환의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¹에 따르면 유병률이 높은 질환 10위 이내에 피부염 및 피하조직의 질환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환자들이 인지하고 불편과 고통을 느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만 포함된 것으로 실제로 모든 피부 질환을 포함한다면 유병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들이 생명과 직결되는 여러 내, 외과적 질환들과 함께 피부 질환을 꼽은 것 역시 피부 질환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인터넷의 접근성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부 질환의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피부과 진료를 표방하는 피부 관리실들의 증가로 인해 사람들이 피부 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피부 질환이 증가하고 피부 건강 및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환자들에게 피부과적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피부 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피부과를 방문한 환자들의 피부 질환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8년 3월, 1달간 전국에 있는 총 62개의 피부과 병원(종합병원 포함) 및 의원을 방문한 1,901명의 초진 및 재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2. 설문 내용

총 11문항으로 설문 조사를 구성했고 피부과 방문 목적, 피부 질환의 이환 기간, 피부 질환 발생 시 대처, 피부 질환에 대한 순응도 및 인식, 피부 질환에 대한 상식을 물어보았다.

1) 피부과 방문 목적(Table 1의 문항 1)

피부과를 방문한 것이 피부 질환의 치료 목적인지 주름, 색소 질환 등의 미용 목적인지를 물어보았다.

2) 이환 기간(Table 1의 문항 3)

피부 질환으로 내원 시 이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3) 피부 질환 발생시 대처(Table 1의 문항 4, 5)

피부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 방법과 피부과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4) 피부 질환 치료의 순응도 및 인식(Table 1의 문항 6, 7)

피부과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에게 처방대로 잘 시행했는지 여부와 피부과 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5) 피부 질환에 대한 상식(Table 1의 문항 8-1~11-5)

음식이 피부 질환에 미치는 영향과 샤워 습관 및 보습제의 사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흔한 피부 질환인 여드름과 기미에 대한 상식을 질문하였다. 또한 각종 정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3. 통계 분석

모든 자료는 SPSS 버전 12.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석 시에는 Mann-Witney U-test를 사용하였고 연령, 이환 기간에 따른 분석 시에는 ANOVA 방법으로 통계 처리하였으며, 인터넷의 영향에 따른 평균 정답률 비교는 Student t-test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들의 정보

설문에 참여한 1,901명의 환자 중 남자는 751명(39.52%), 여자는 1,150명(60.48%)이었다. 나이에 따른 분포는 20대 미만인 144명(7.57%), 20~30대는 1,115명(58.65%), 40~50대는 535명(28.14%), 60대 이상은 107명(5.63%)이었다.

2. 피부과 방문 목적 및 이환 기간

1) 방문 목적 결과

피부 질환 때문에 피부과를 방문한 남자 환자는 583명(77.73%)이었고, 미용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는 117명(15.52%)이었으며,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 경우는 51명(6.75%)이었다. 여자 환자의 경우, 피부 질환의 치료를 위해 방문한 사람은 698명(60.75%), 미용 목적인 경우는 318명(27.61%),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환자는 134명(11.64%)이었다. 모든 연령 군에서 피부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20~30대 군의 경우 미용 목적인 경우가 314명(28.16%)으로 다른 연령 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p < 0.05$).

2) 이환 기간 결과

이환 기간은 6개월 이상인 환자가 915명(48.12%)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1주 미만(400명, 21.02%), 1개월에서 6개월 미만(358명, 18.83%), 1주에서 1개월 미만(228명, 12.0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Summary of questionnaire used in this survey

Questions	
1. 피부과를 찾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피부 질환	2) 미용 목적(주름/기미, 잡티 등의 색소 질환/기타) 3) 위 둘 모두 해당합니다.
2. 성별, 연령	
3. 피부 질환으로 내원하셨다면, 그 피부 질환의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1) 1개월 미만	2) 1~3개월 3) 4~6개월 4) 6개월 이상
4.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1) 집에 있는 약을 복용하거나 연고를 바른다.	2) 약국에서 원하는 치료제를 사서 사용한다.
3)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찾아본다.	
4) 아무 병원이나 방문하여(피부과 전문의인지 확인 없이) 처방받는다.	
5) 피부과 의원을 찾는다.	
5. 만약 (위 질문에서) 피부과 의사의 진찰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꼭 피부과를 찾지 않아도 잘 좋아질 것 같아서	2) 피부 질환은 별로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3) 피부과를 찾는 것이 귀찮아서 혹은 피부과 전문의 여부를 알기 어려워서	
4) 인터넷이나 다른 곳의 접근이 더 용이하고 간편해서	5) 피부과 약은 독하여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6. 피부과 진료 후 피부과 의사의 처방대로 잘 시행하십니까?	
1) 피부과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처방대로 시행한다.	
2) 먼저 인터넷이나 다른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고 처방을 따른다.	
3) 다 먹으면 독할 것 같아서 임의로 조절해서 복용한다.	
4) 거의 잘 복용하지 않거나 시행치 않는다.	
7. 피부약이 독하고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약 복용 후 소화가 잘 안되어	2) 몸이 나른하고 졸려서
3) 살이 찌는 것 같아서	4) 다른 사람 및 인터넷 등으로부터 들어서
5) 약국에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어서	
8-1.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음식을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8-2. (위 질문에서) 만약 피부 질환시 음식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귀하께서 피해야 할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돼지고기나 닭고기	2) 초코렛, 과자 3) 땅콩, 우유, 계란 등
4) 밀가루 음식	5) 라면 및 패스트 푸드
9-1. 때밀이 목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때를 미는 것이 피부에 좋다.	
2) 때를 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알고는 있으나, 때밀이 목욕을 하게 된다.	
3) 때를 미는 것은 피부에 좋지 않아 하지 않는다.	
9-2. 목욕 후 바디 로션과 같은 보습제의 사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목욕 후 항상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피부 보습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들었으나 불편해서 잘 사용치 않는다.	
3) 보습제는 피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사용치 않는다.	
10. 여드름 치료에 관한 귀하의 상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O, X로 답해 주십시오.	
10-1. 여드름은 사춘기에만 발생하는 병이다.	
10-2. 여드름은 성인이 되면 저절로 없어지므로 치료가 필요치 않다.	
10-3. 여드름은 발생시 빨리 집에서 짜 주어야 한다.	
10-4. 여드름 치료제를 도포하면 막힌 모공을 열어주어 모공이 넓어진다.	
10-5. 여드름 흉터(깊게 패인 여드름자국)는 치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11. 기미에 관한 귀하의 상식 및 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O, X로 답해 주십시오.	
11-1. 기미는 여성에만 발생한다.	
11-2. 기미는 임신, 호르몬제를 비롯한 여러 약제, 내분비 질환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11-3. 기미는 햇빛(자외선) 노출에 의해 더 악화될 수 있다.	
11-4. 기미는 피부과적 치료보다 피부 관리, 화장품 등에 의존하는 편이다.	
11-5. 기미는 치료가 어려우나 피부과에서 도포제와 적절한 레이저와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	

Answer) 10-1: X, 10-2: X, 10-3: X, 10-4: X, 10-5: X, 11-1: X, 11-2: O, 11-3: O, 11-4: X, 11-5: O.

3. 피부 질환에 대한 대처

1) 피부 질환 발생시 대처 자세 결과

피부과를 방문한 경우가 1,165명(61.28%)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집에 있는 약을 복용,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음, 약국에서 권하는 치료제를 사용, 아무 병원이나 방문하여 치료를 받음 순이었다(Fig. 1). 남녀 모두 피부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각각 58.43, 63.13%로 가장 많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연령에 따른 대처 양상을 보았을 때, 모든 연령 군에서 피부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대 미만, 20~30대 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았다($p < 0.05$)(Table 2). 이환 기간에 따라 분석해 보았을 때, 1주 미만과 6개월 이상인 군이 다른 군에 비해 피부과를 방문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피부 질환 발생 시 대처 행태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개인외원을 방문한 환자군의 질병 구성이나 중증도, 경제, 지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병원들을 모두 혼합하여 조사한 것으로 표집오차(sampling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2) 피부과를 찾지 않은 이유 분석

피부 질환 발생 시 피부과를 찾지 않는다고 대답한 736명의 환자 중에서 256명(34.91%)은 꼭 피부과를 찾지 않아도 피부 질환이 좋아질 것 같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231명(31.33%)은 피부 질환은 별로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

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피부과를 찾는 것이 귀찮아서(110명, 14.88%), 인터넷이나 다른 곳의 접근이 더 용이하고 간편해서(95명, 12.88%), 피부과 약은 독하여 부작용이 걱정되어서(44명, 6.01%) 순으로 조사되었다.

4. 피부과 치료 순응도 및 인식

1) 순응도 결과

피부과에서 처방 받은 대로 시행하는 환자는 1,547명(81.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임의로 조절하여 복용하거나, 인터넷 등 다른 정보를 통해 처방을 확인하거나, 처방을 잘 따르지 않는 순으로 조사되었다(Fig. 2). 연령대 별로 보았을 때, 20대 미만 군과 달리 20~30대 이후의 연령군에서는 처방을 임의로 조절하여 투약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또 성별이나 이환 기간에 따른 순응도의 차이는 없었다.

피부 질환 발생 시 피부과를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군에서 방문하지 않는 군보다 처방에 대한 순응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5$)(Table 3). 한편 피부 질환 발생시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던 군은 다른 군보다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유의하게 낮았다($p < 0.05$)(Fig. 3).

2) 피부과 약에 대한 인식

피부과 약이 독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인터넷 등의 정보에 의한 경우가 687명(36.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소화 장애, 졸립, 약국에서 들은 부작용에 대한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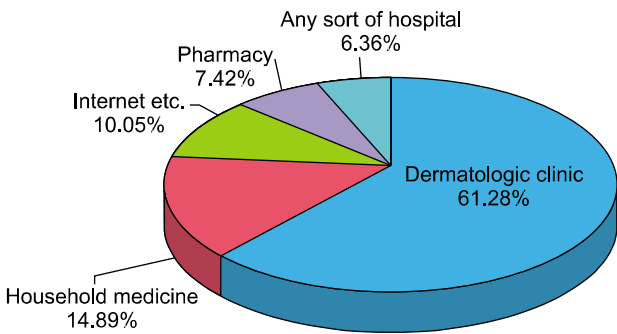


Fig. 1. Treatment-seeking behavior of dermatologic outpati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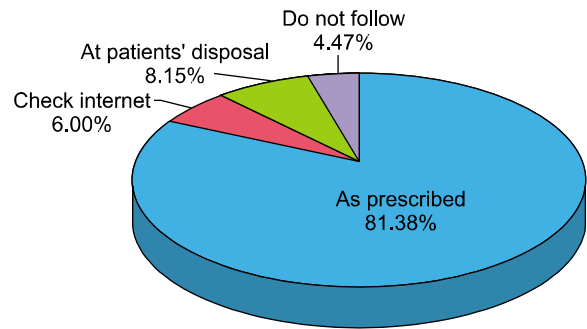


Fig. 2. Compliance of dermatologic outpatients

Table 2. Patients' treatment-seek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age

Age	Household medicine (%)	Pharmacy (%)	Internet etc. (%)	Any kind of hospital (%)	Dermatologic clinic (%)
<20 years	20 (13.70)	7 (4.79)	20 (14.38)*	12 (8.22)	85 (58.91)
20~40 years	173 (15.52)	75 (6.73)	149 (13.36)*	61 (5.47)	657 (58.92)
40~60 years	76 (14.21)	52 (9.78)	21 (3.87)	36 (6.64)	350 (65.50)
>60 years	14 (12.62)	7 (6.80)	1 (0.97)	12 (11.65)	73 (67.96)
Total	283 (14.89)	141 (7.42)	191 (10.05)	121 (6.36)	1,165 (61.28)

*Significant, $p < 0.05$.

Table 3. Compliance between dermatologic clinic-visiting group (A) and non-visiting group (B)

	As prescribed (%)	Check internet (%)	At patient's disposal (%)	Do not follow (%)
A	1,039 (89.18)*	29 (2.49)	65 (5.58)	32 (2.75)
B	508 (69.03)*	85 (11.53)	90 (12.20)	53 (7.24)
Total	1,547 (81.38)	114 (6.00)	155 (8.15)	85 (4.47)

*Significant,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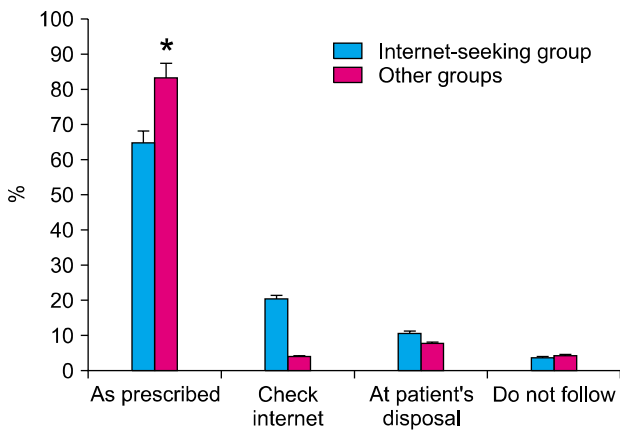


Fig. 3. Compliance of internet-seeking group versus other groups. *Significant, $p < 0.05$

다 설명, 체중증가 순으로 조사되었다(Fig. 4). 여성의 경우 체중증가에 대한 이유로 약이 독하다고 생각하는 환자(164명, 14.23%)가 남자 환자보다(47명, 6.21%)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 군에서는 40대 이상의 군보다 인터넷에서 접한 정보에 의한 경우가 높았고, 60대 이상의 환자 군에서는 다른 연령 군보다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p < 0.05$). 한편 이환 기간에 따른 피부과 약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었다.

5. 피부 질환에 대한 상식

1) 상식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음식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는 1,435명(75.47%)으로 나타났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환자는 466명(24.53%)으로 조사되었다. 음식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환자들 중 라면 및 패스트 푸드의 식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487명, 33.93%) 그 밖에도 돼지고기나 닭고기(387명, 26.98%), 초콜렛이나 과자(226명, 15.73%), 밀가루 음식(170명, 11.82%), 땅콩이나 우유 및 계란 등(16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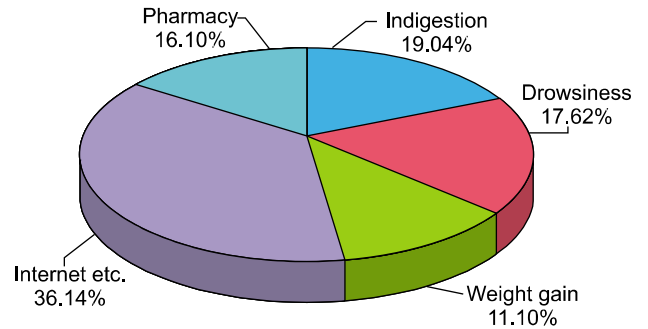


Fig. 4. Reasons that having negative recognition of the prescribed medicine in dermatology

11.54%)의 순이었다. 목욕 습관에 대한 질문에서 반수 이상의 환자가(1120명, 58.9%) 때를 미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으나 때밀이 목욕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491명(25.85%)만이 때밀이 목욕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목욕 후 보습제의 사용에 관한 질문에서는 1,060명(55.73%)이 목욕 후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724명(38.10%)은 보습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불편하여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117명(6.17%)은 효과가 없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흔한 피부 질환인 여드름 및 기미의 상식에 관한 질문 결과 각각 76.43%, 89.04%의 정답률을 보였다.

2) 인터넷의 영향

위의 피부 건강 및 피부 질환에 대한 질문의 정답률은 피부 질환 발생 시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한다는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77.28% vs 82.52%). 나이에 따른 분석에서는 20대 미만 군과 20~30대 군에서는 인터넷군과 비인터넷군 간에 정답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p < 0.05$), 40~50대 및 60대 이상의 군에서는 인터넷군과 비인터넷군 간에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p > 0.05$).

고 찰

최근 사회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피부와 피부 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민의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²를 살펴보면 서울 시민이 앓고 있는 주요 만성 질환 중 피부 질환이 2위로 나타났다. 또 소득 수준별 10대 만성 질환 유병률을 보면 월 소득 수준이 100만원 미만의 비교적 경제적 상태가 낮은 군에서는 관절염, 요통 및 좌골 신경통 같은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이 1위를 차지한 반면 월 소득 수준이 100만원 이상인 군에서는 피부 질환의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른 피부 질환 이환 양상의 특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경제적 상태가 높을수록 피부 질환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이용 빈

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 여러 연령 군중에서 성인전기(19~44세)에서는 여러 만성 질환 중 피부 질환 유병률이 1위로 밝혀졌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성인 전기에 피부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 역시 20~30대의 환자가 1,115명(58.65%), 40~50대 환자가 535명(28.1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한국 피부과 문헌에 발표된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3,5}.

피부과에 방문한 목적은 피부 질환의 치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남성의 15.52%, 여성의 27.61%는 미용 치료의 목적만으로 피부과를 방문하였고, 20~30대 군(28.16%)이 20대 미만 군(11.11%), 40~50대 군(16.82%) 또는 60대 이상 군(14.02%)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결과는 최근 피부과 영역에서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써, 사람들은 피부과를 피부 질환 치료의 장소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질환 이외의 피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피부 질환 발생 시 대처방법은 피부과 병·의원을 찾는 경우(61.28%)가 가장 많았지만 집에 있는 약을 복용(14.89%)하거나, 인터넷 등에서 정보 검색(10.05%)을 하거나, 약국에서 원하는 치료제를 사용(7.42%)하거나, 또는 아무 병원이나 방문하여 치료(6.3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피부 질환자 중 상당수는 바로 피부과에서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상비약을 복용하거나 비전문적인 치료를 하다가 증세의 호전이 없어 피부과를 방문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이는 Kim 등⁶의 연구에서 처음 치료를 위해 피부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74.3%였고,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17%였으며 일반의원은 8.2%, 기타 0.6%로 조사된 결과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Kim 등⁶의 연구에서는 피부 질환이 발생한 환자의 24%에서 민간요법 또는 개인 요법을 사용했다고 대답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피부 질환 발생 시 약 15%의 환자만이 집에 있는 약 등을 이용한 개인 요법을 시행하여 약 10% 정도 감소한 반면, 10년 전의 조사에서는 거의 없었던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증가하였는데(10.05%) 이는 인터넷 등의 다양한 정보 및 언론 매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피부과인지 확인하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가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적인 피부과 치료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1950~1970년대에 타과에서 피부과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생각된다.

피부과 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보면, 피부 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은 남녀 및 모든 연령 층에서 80% 이상의 순응도를 보여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피부 질환 발생 시 바로 피부과를 방문하지 않은 군에서 추후 피부과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의 순응도는 69.03%로 유의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약을 임의로 조절하여 복용하는 환자들 중에

서 20대 미만 군은 2.76%로 매우 낮은 반면 20대 이상의 군은 약 8~9%로 20대 이후부터 투약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20대 미만 군은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통제에 의해 투약이 이루어지는 반면 20대 이후부터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투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 조절로 인한 부작용이나 효능 감소가 없도록 치료 간격을 적절히 설정하거나 복용약 및 치료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환자의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을 채택하는 등 충분한 상호 이해 및 교류를 통해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⁷.

피부는 신체 장기 중 가장 관찰이 용이한 기관으로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많은 이점이 있다⁸.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의약 분업 이전에는 약사나 무자격자에 의한 국소 도포, 투약, 처치 등이 이루어져 왔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9,10}. 이의 영향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피부과 약은 독하다’, ‘피부과 약은 부작용이 많다’, 또는 ‘피부과 약을 먹으면 살이 쪼다’ 등 여러 잘못된 인식들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피부과 약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얻은 정보로 피부과 약이 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남성보다 체중 증가에 대한 이유가 더 많았다. 또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 군에서 40대 이상의 군보다 인터넷 등의 정보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나 의존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인터넷이나 여러 정보 및 언론 매체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Suh 등¹¹은 국내 여드름 환자에서 여드름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 35.9%의 환자가 인터넷을 꼽았고, 그 외에도 11.8%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7%는 잡지, 5.1%는 신문이라고 답하였다. 또 Choi 등¹²은 무가지 신문에 실린 피부과 관련 정보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무가지 신문에는 피부과학적 지식에 위배되는 정보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정보, 치료 효과에 대한 과장이 심한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체는 상업성이 높은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피부 질환 발생 시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얻는 군은 다른 군에 비해 추후 피부과 치료 시에 순응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피부 질환에 대한 상식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다른 군에 비해 정답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인터넷 등의 매체가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여러 의료 정보의 창고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불확실하거나 잘못된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노출될 경우 악영향을 초래함을 알 수 있다¹³⁻¹⁶. 따라서 나날이 잘못된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환자들이 피부 질환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한 피부과 의사들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결 론

피부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피부과의 방문 목적은 67.39%가 피부 질환, 22.88%가 미용이었다. 피부 질환 발생 시 피부과 의원을 잘 찾아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28%가 피부과 의원을 찾는다고 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나 반대로 38.72%라는 많은 수는 피부 질환 발생 시 피부과를 찾지 않고 있었다. 피부과 치료 순응도는 피부과 의사의 처방대로 잘 따른다는 응답이 81.38%로 가장 많았으나 여전히 약을 임의로 조절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피부과 약이 독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인터넷 등 언론 매체와 약국에서 약사의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경우가 52.24%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피부 질환 발생 시 먼저 인터넷을 통해 질환이나 약에 대한 정보를 찾는 군은 치료 후 순응도도 떨어지고 피부 질환에 대한 상식도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부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환자들이 피부과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부과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터넷 등의 언론 매체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음을 알고 올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피부과 의사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이와 함께 대한피부과학회 또는 대한피부과 의사회 차원에서 인터넷에 퍼져 있는 잘못된되거나 과장된 정보에 대해서 피부과 의사, 대중 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환자들이 피부 질환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2002년, 2005년 상병 분류별, 성별에 따른 외래환자수에 대한 통계조사. 보건복지가족부(<http://www.kosis.kr>)
2. 김혜련, 문상식, 장숙량, 최은진, 신창우, 류제복 등. 서울 시민의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2002년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Song DH, Kang WH, Lee SN. A statistical study of dermatoses in wonju area during the recent 5 years (1980~1984). *Korean J Dermatol* 1988;26:34-44
4. Chang SN, Lee JS, Lee SH, Park YK. A statistical study of dermatoses in the gangnam area of seoul (1983~1992).

Korean J Dermatol 1994;32:872-885

5. Kim JB, Kim JH. A statistical study of outpatients during the ten years from 1981 to 1990. *Korean J Dermatol* 1996;34:366-374
6. Kim KM, Kye YC, Kim SN. Analysis of the patient's behavior and understanding of the skin diseases. *Korean J Dermatol* 1998;36:657-665
7. Cushing A, Metcalfe R. Optimizing medicines management: From compliance to concordance. *Ther Clin Risk Manag* 2007;3:1047-1058
8. 박영립, 홍창권, 오창근, 최규철, 정기양, 김성진 등. 피부 질환의 치료, In: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 5판. 서울: 여문각, 2008:777
9. Lee WS, Eun HC, Park HS, Lee SH, Moon SE, Shin HC, et al. Multicenter prospective clinico-epidemiologic study on the abuse, misuse, and adverse effects of drugs in dermatological field. *Korean J Dermatol* 1999;37:1385-1398
10. Kim SH, Ahn KJ, Hann SK, Kim JW, Sung KJ, Kye YC, et al. Clinico-epidemiologic study on the abuse, misuse, and adverse effects of topical dermatologic drugs. *Korean J Dermatol* 2003;41:1128-1135
11. Suh DH, Shin JW, Min SU, Lee DH, Yoon MY, Kim NI, et al. Treatment-Seeking behaviors and related epidemiological features in korean acne patients. *J Korean Med Sci* 2008;23:969-974
12. Choi JE, Ahn HH, Kye YC. A study for the credibility of dermatologic articles in free newspapers. *Korean J Dermatol* 2007;45:1132-1138
13. Murray E, Lo B, Pollack L, Donelan K, Catania J, White M, et al. The impact of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on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patient perceptions. *Arch Intern Med* 2003;163:1727-1734
14. Cline RJW, Haynes KM.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eking on the internet: the state of the art. *Health Educ Res* 2001;16:671-692
15. Kim SY. Internet health information. *J Korean Acad Fam Med* 2002;23:281-291
16. Iverson SA, Howard KB, Penney BK. Impact of internet use on health-related behaviors and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a survey-based study and review. *J Am Osteopath Assoc* 2008;108:699-711